구원받기가 제일 싫은 이유

(스가랴 11:1~17)

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5.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6.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7.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
8.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9.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기가 제일 싫은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받기가 제일 싫은 이유'

구원은 곤경과 참혹함과 비참함의 위기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상태에서의 건져냄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류 전체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독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만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싫어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싫어서 배척하고 좋아하면서 배척합니다. 싫어서 배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배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삼십 개에 팔아넘기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

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드러나는 광경을 살펴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값을 정해보라고 제시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고작 은 삼십 개를 매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배척할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러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은 삼십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은 예수님을 노예로 삼고자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노예처럼 부려서 이 땅에서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서 하는 배척의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배척하지만 나의 노예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노예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세상을 붙잡고 소원성취를 이루고 싶을 때에 예수님을 노예로써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싫어하기에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주인으로써는 배척하되 은 삼십에 살 수 있는 노예로써만 환영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두 가지 양상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를 성도요 교인이라고 칭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좋아하며 배척하는 자들은 아닌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배척한다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노예로써만 좋아하지만 주인으로써는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본문 1~3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단의 자랑이란 요단 동쪽이자 길르앗 북쪽의 바산에 풍요로운 목초지와 숲이 있었음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무가 쓰러지고 숲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나온 자랑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랑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가온"으로써 탁월함, 높음을 뜻합니다. 어원적으로는 솟아오르다, 부풀어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를 부풀고 솟아오르게 하는 대상에 대해 입으로 꺼내서 말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맥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랑의 대상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성전 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는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이 성전의 존재의미는 예수님의 의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연결하여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 재료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당시로써는 최고의 건축 재료였습니다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이러한 재료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핵심적 재료가 빠져나가게 된 상태를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지어지지 않은 스룹바벨 성전을 백성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존재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존재의미를 진정으로 완성시키실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가져다주실 구원을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대상들과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이 잿더미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주시는 구원은 다른 자랑거리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를 나의 자랑거리로 갖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재로 변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돌보듯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마음에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돈을 휴지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랑거리를 내 자랑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귀하디귀한 돈을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이라고 말씀하시며 비판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돈 문제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

산에 관한 일이나 헌금에 관한 일로 다툼이 생겨납니다. 돈 뿐만이 아닙니다. 학벌, 집안, 외모, 승진 등과 같은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좋은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휴지로 느껴질 정도로 가장 좋은 자랑거리를 주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를 상실로 여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마음으로 붙들고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서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은 삼십 개에 살 수 있는 노예로써 환영할 뿐입니다.

본문 4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한탄이 나옵니다. 선민을 양떼로 비유하시며 한탄하시고 양떼를 먹이도록 위임하신 목자로써의 지도자들을 한탄하십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가 죽을 길에 놓여있음을 보시고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양떼가 목자를 배척할 것도 아셨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막대기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선민인 양떼는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로 가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늘로 올라올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은총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의 현실감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나 상사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 것만을 현실로 느끼던 상태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될 때에 마음은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마음이 부풀린 자들은 입을 열 때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마련이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도맡아주십니다.
정리해봅니다. 은총이란 곧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몸의 오감으로 느끼는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과 천국을 우선적인 현실감의 대상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할 일은 목자를 따르며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도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삶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먹고 마실 때에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불타고 남은 잿더미처럼 여겨질 것이기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죽기로 결정되어진 양떼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음이 전부 땅에 붙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마음이 부풀고 솟아올랐습니다. 입으로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동안 예수님이 땅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자고 하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싫어한 이유는 1~3절에서 언급된 땅에 있는 자랑거리들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목자들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땅에 마음 붙이고 있는 양떼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양떼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땅에 있는 자랑거리들을 먹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선민들에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지도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3은 여기서는 지도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지도자이든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말씀을 가르치던 사회적 지도자이든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이 영적 기능을 담당하던 지도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예외 없이 양떼를 먹일 때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도록 양떼를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좋아하던 자랑거리들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버리실 때에 세 목자들도 다 제거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민의 나라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먹고 마시도록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침 흘리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내 마음에서 하얀 재로 여겨질 때까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며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내 마음에서 재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학벌이 내 마음에서 재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외모나 승진 등의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재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부풀게 하고 솟아오르게 하는 유일한 자랑거리이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자의 소원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져다주신 구원이자 자랑거리이신 하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풀어 오르고 마음이 하늘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동안 입으로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